일제 하 '全州' 지방의 지방사 편찬*

-『全州府史』(1942)를 중심으로 -

정 상 우**

1. 서언
2.『全州府史』 편찬 이전 전주에 대한 기록들과 간행물
3.『全州府史』의 편찬과 특징
  1)『全州府史』의 편찬 동기와 구성
  2) 실증된 전주의 역사
  3) 전주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들: 중앙사와 지방사의 관계
4. 결어

1. 서언

지방사회에서 그 지방의 현황과 역사를 정리하는 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왕조 건국 이래 중앙에서 지방 통치를 위해 또는 지방 사회 지배층들이 서로 연대하고 자신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관찬·사찬의 지리지·읍지가 편찬된 것이다.[1] 이러한 지방사 편찬은 강점 이후 재조일본인이나 朝鮮總督府 산하의 地方廳, 또는 지방의 유림들에 의해 지속되었고 해방 이후 현재까지도 주

* 이 논문은 2014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1) 조선시대 지지 편찬에 관해서는 이태진, 1979「『東國輿地勝覽』 편찬의 역사적 성격」『震檀學報』 46·47합집 ; 서인원, 2002『朝鮮初期 地理志 硏究:『東國輿地勝覽』을 중심으로』, 혜안 ; 양보경, 1987『朝鮮時代 邑誌의 性格과 地理的 認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을 참조.

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市史', '○○道史'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사 편찬의 역사에 있어 일제 하, 특히 지배민족이었던 재조일본인 혹은 식민권력체인 조선총독부 산하 地方廳에 의한 지방사들은 특이한 존재이다. 당시 지방 사회의 유림들에 의한 지방사 편찬은 과거 조선시대의 읍지 편찬을 계승·보완하는 의미를 가지며 형식과 내용면에서 해방 이후의 지방사 편찬에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특정 지방에서 어떠한 지방사지가 편찬되었으며, 그것이 지방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가 규명되어 왔다.[2] 반면 재조일본인이나 地方廳에서 편찬한 지방사의 경우 대부분 과거의 전통은 물론 이후와도 단절되어 있는 것으로 전제된 채 강점 이후 조선에 정착한 일본인이나 조선총독부의 '施政'을 과시·홍보하는 가운데 통치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수단으로서 파악되었다. 즉 총독부의 문화시책이나 교육정책에 대해 재조일본인이나 지방청은 어떻게 호응했고 그것이 지방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지방통치를 위해 조선인을 포함한 지방의 유지들을 어떻게 포섭·활용했는가 등의 문제가 밝혀져 온 것이다.[3]

조선시대 이래 현재까지도 지방사지류의 편찬 목적은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지방 통치와 소개를 위해서, 혹은 지방 사회의 유력층들이 자신들의 위상을 강

2) 양보경·김경란, 2001「일제 식민지 강점기 邑誌의 편찬과 그 특징」『응용지리』22 ; 허홍범, 2003「지역사 연구와 사료: 지역사 연구와 지방지 편찬-경기지역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48 ; 林地煥, 1989「全北地域 邑誌에 관한 硏究: 氏族形勢에 대한 分析을 중심으로」『全羅文化論叢』3 ; 임기영, 2011「永川 地域 간행 서적에 대한 서지적 고찰」『서지학보』38 ; 김철배, 2011「『完山誌』 인물조 검토」『건지인문학』6 ; 허경진·강혜종, 2012「『朝鮮寰輿勝覽』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洌上古典硏究』35 ; 김경옥, 2013「『金陵邑誌』의 편찬시기와 성격에 대한 검토」『역사학연구』52 ; 이상동, 2014「淸道邑誌를 통해 살펴본 일제강점기 邑誌 편찬의 一例」『민족문화논총』58 ; 부영근, 2014「『慶州邑誌』 考察」『동양한문학연구』39.

3) 지수걸, 1999「일제하 충남 서산군의 '관료-유지 지배체제': 『서산군지』(1927)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3 ; 문지은, 2010「1930년대 鄕土敎育論의 展開와 日帝의 鄕土敎育 施策」,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주, 2011「일제강점기 재조일본인의 지방사 편찬활동과 조선인식」『사학연구』103 ; 이동주, 2011「奧田悌의 〈慶州誌〉 발간의 역사적 성격」『동국사학』51.

조·강화하기 위해서이며, 이는 일제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재조일본인은 외부에서 이입된 지배민족이었으며 지방청은 식민권력을 담지하고 실행하던 곳이었던 만큼 이들에 의한 지방사 편찬이 지방사회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자신들을 과시한다거나 식민지배를 위한 포석이었음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제 하 지방사 편찬에 대한 연구는 이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다보니 지방사 편찬을 통해 그 지방의 역사적 특성을 누가 어떻게 정리했는지, 즉 지방사 편찬의 양상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알려진 것이 없다.

한편 일제 하 재조일본인이나 지방청에 의한 지방사 편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식민통치책 내지는 특정 지방에 대한 시책 등과의 관련성 속에서 지방사 편찬의 의미를 찾아왔다. 우리 역사에서 지방의 자율성이란 것은 중앙에 의존하는 상대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정책적 측면에서 중앙과 지방의 연결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제 하 발간된 지방사지들, 특히 地方廳에서 발간한 것들은 해당 지역의 역사서술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4] 그렇다면 당시의 지방사 편찬은 중앙의 역사편찬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과연 중앙의 역사편찬과 별개인 지방사 편찬이 가능한 것일까, 특히 그것이 재조일본인이나 지방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양자의 연관성은 더욱 강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총독부는 朝鮮史編修會(이하 '편수회')나 京城帝國大學과 같은 학술 기구들을 설치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인이 원했든 그렇지 않았든, 이른바 '근대 학문', '근대 역사학'이 제도화되어 확산되었다. 특히 편수회는 총독의 직속기구로서 당시 중앙의 역사편찬 사업을 대변하는 존재였다. 그렇다면 '근대 역사학'의 담지자이자 중앙의 역사편찬이었던, 편수회 사업과 지방사 편찬의 관련성을 추적해 보는 것은 지방사 편찬을 통하여 일제 하 이루어진 역사편찬사업의

4) 특히 여기서 주목하는 『全州府史』와 비슷한 시기에 大邱府에서 간행한 『大邱府史』(1943)의 경우 대구에 대한 당시의 현황을 전하고 대구에 대한 통사적 서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를 주제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하고 있다(이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4 「일제강점 말기 관찬 지방사에서의 지방 구현: 『大邱府史』(1943)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5 참조).

변화상을 포착하고 의미를 재고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제 하 지방사 편찬의 양상을 1942년 全州府에서 간행한 『全州府史』를 중심으로 조망해보고자 한다. 전주는 조선 왕실의 관향으로 조선조 이래 '豊沛'의 땅으로 칭해졌으며, 전라도를 총괄하는 전라감영의 首府가 위치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호남 제일의 요지였다. 그렇지만 개항 이후 군산이나 목포와 같은 개항장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해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인근 신생 도시에 비해 府로의 승격도 늦어졌다. 이처럼 개항과 강점을 거치며 위상이 약화된 전주를 대상으로 식민지배 막바지인 1942년에 간행된 『全州府史』는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에 전주가 모습을 드러낸 이래 현재에 이르는 역사와 지방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저작이었다. 실로 『全州府史』는 이른바 '근대적인' 역사서술 체제인 장절 체제에 기초하여 전주의 역사와 편찬 당시의 현황을 서술하고 있다. 더군다나 1942년 이라는 『全州府史』의 간행 시점은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가 완간(1938년 3월 완간)된 이후이다. 그렇다면 『全州府史』를 통하여 '근대 역사학'이 제도화되고 중앙의 역사편찬사업이 완결됨에 따라, 지방사 편찬이 어떻게 변했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본고에서는 전주에 대한 최초의 통사적 접근이자 근대 역사서의 체제로 구성된 『全州府史』에서 전주의 역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리되었는지, 또 편수회로 대변되는 중앙의 역사편찬 사업과는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이를 통해 일제 식민지배 말기 지방사 편찬의 양상과 식민지기 역사편찬 사업의 성격을 조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2. 『全州府史』 편찬 이전 전주에 대한 기록들과 간행물

중앙에서 지방을 파악하는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부터는 국초부터 지방을 통치하고 성리학적 이념을 제시하기 위해 지방의 정보를 수집·보관하여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지리지가 편

찬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5] 이러한 조선 전기의 地誌에는 전주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른 지방에 대한 기술과 마찬가지로 명칭과 연혁은 물론 大川과 같은 자연지리적 사항을 필두로 四境, 면적, 戶數, 軍丁, 土姓, 人物, 풍속, 土宜, 土貢, 陶器所, 邑石城, 驛, 要害, 大堤, 所領 등과 같은 수취나 군사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전주의 지역 상황은 물론 樓亭, 學校, 佛宇, 祠廟, 전주의 유명한 古跡과 名宦, 人物, 孝子, 烈女 및 題詠과 같은 성리학적 가치를 드러내는 이들과 공간에 대한 사항까지도 전하고 있다.[6]

편목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정을 전하는 것은 이후 간행된 地誌나 邑誌에서도 동일하다. 물론 시대적 상황에 따른 읍지편찬의 동기와 필요에 따라 편목에 異同이 발생하지만 기본적으로 편목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지역의 사정을 백과사전식으로 알려주는 것은 동일하다. 전주 지방의 경우 18세기 중반 이래 地誌, 邑誌들이 대거 나타나는데, 1760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全州府邑誌』는 坊里, 道路, 建置沿革, 郡名, 形勝, 城池, 官職, 山川, 姓氏, 風俗, 陵殿, 壇廟, 公廨, 堤堰, 倉庫, 物產, 橋梁, 驛院, 樓亭, 寺刹, 鎭堡, 人物, 忠臣, 孝子, 烈女, 旱田, 水田, 進貢, 羅, 田稅, 大同, 均稅, 俸廩, 軍兵의 편목에 따라 전주의 사정을 전하고 있으며, 이는 1793년 간행된 『湖南邑誌』 가운데 '全州府' 편에서도 동일하다.[7] 이후 전주 지역의 읍지는 1872년경 다시 등장한다. 1871년 왕명에 따라 전라도의 각 군현에서 제작하여 올린 읍지를 묶은 『湖南邑誌』의 제4책에 실린 '完山誌'가 그것이다. 이 당시의 『湖南邑誌』는 前代에 이루어진 읍지를 轉寫한 경향이 현저하다고 평가되는데,[8] 여기에 실린 '完山誌'는 上·下 두 권으로

---

5) 물론 『三國史記』나 『高麗史』에도 地理誌가 실려 있지만 이는 지방의 간략한 연혁만을 전할 뿐으로, 여기서 주목하는 전주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三國史記』와 『高麗史』 지리지에는 全州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이는 명칭과 행정적 변경 사항만을 단 몇 줄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친다(『三國史記』 卷第三十六, 雜志 第五 地理三 新羅 全州 ; 『高麗史』 卷第五十七, 志第十一 地理二 全羅道 全州牧).

6)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全州府 ;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3, 全羅道 全州府.

7)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地理志編, 2007 「『全羅道邑誌』 16권~17권 해설」 『全羅道邑誌』 17, 6-7면. 이에 따르면 1793년 간행된 『湖南邑誌』의 '全州府' 편은 1760년경의 것과 편목, 내용, 숫자 하나까지도 동일하다고 한다.

8) 양보경, 1982 「全羅道邑誌에 대한 小考」 『邑誌 四』 全羅道①, 韓國地理志叢書, 29면.

나누어 상권에는 建置沿革을 필두로 전주의 제반 사항을, 하권에는 人物에 관련된 사항을 보다 세분하여 싣고 있다.[9] 1895년에 18책으로 묶인 『湖南邑誌』에도 제14책이 전주에 해당하는 '完山誌'인데, 1872년의 것과 편목과 내용이 비슷하며, 1905년에 편찬된 『完山誌』 역시 인물 항목을 대폭 증보되었지만 1872년 『湖南邑誌』 속의 '完山誌'와 편목 구성은 동일하다.[10] 이처럼 전주에 대한 地誌·邑誌 편찬은 조선초 이래 20세기 초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세기 이래로는 人物條의 편목이 세분화된다고 하겠다.[11]

한편 개항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무역이 활성화되고 도로, 철도 등의 교통기관이 설치됨에 따라 이들 지역으로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어 새로운 도심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들 재조일본인들은 조선에 정착한 이후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지역 발전을 이끈 것이 자신들이었음을 부각하는 지방사지를 편찬하였다.[12] 이는 전주도 마찬가지였다. 각각 1897년과 1899년에 개항한 이래 일본인들이 대거 유입되며 새로운 도심이 형성된 목포나 군산에 비해서는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이입자의 수도 적었지만[13] 전주로도 꾸준히 일본인들이 유입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전주의 사정을 알리는 책

9) 1871년의 『湖南邑誌』에 실려 있는 完山誌 상·하권의 편목은 다음과 같다.

上卷	建置沿革, 官職, 郡名, 姓氏, 山川, 風俗, 形勝, 土産, 進貢, 坊里, 戶口, 田賦(田稅·大同·均稅免稅), 倉庫, 鞾鞾, 軍額, 軍器, 廟殿, 壇祠, 學校, 城池, 公廨, 樓亭, 關防, 驛院, 塚墓, 佛宇, 橋梁, 堤堰, 場市, 俸廩, 徭役, 古蹟, 故事.
下卷	人物 - 名臣·儒林·孝子·孝女·烈女·孝婦, 科宦 - 文臣·武臣·蔭仕·生進.

10) 『湖南邑誌』 속의 '完山誌' 및 1905년 간행 『完山誌』에 대해서는 奎章閣資料叢書 錦湖시리즈地理志編, 앞의 논문, 8면 및 김철배, 앞의 논문, 54-61면을 참조.

11) 김철배, 앞의 논문, 57-60면. 이에 따르면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인물조는 名宦, 人物, 孝子, 烈女 4항목으로 53명을 싣고 있는 반면, 『全州府邑誌』는 文臣, 孝子, 孝女, 烈女, 孝婦, 忠臣 6가지로 분류하여 88명을, 1872년 『湖南邑誌』 속의 '完山誌'이래로는 名臣, 儒林, 孝子, 孝女, 烈女, 孝婦, 文臣, 武臣, 蔭仕, 生進의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684명, 1895년의 것은 715명, 1905년 『完山誌』에는 721명이 실려 있다고 한다.

12) 최혜주, 앞의 논문, 168-171면 ; 정상우, 2014 앞의 논문, 297-300면.

13) 목포와 군산의 경우 개항 이후 1년만인 1898년과 1901년에 거류민회와 일본민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들에 의해 『木浦誌』(1914)와 『湖南鐵道と群山』(1910)과 같은 서적이 발간되었다.

자가 발간된 것이다. 전주에 처음으로 일본인이 정착한 것은 1897년 1월로 이후 러일전쟁 발발 당시까지는 9戶 25명에 불과했지만 1907년 가을 이래 급격히 증가하여 1909년 5월말에는 320호 821명에 달했으며,[14] 이렇게 일본인이 증가하던 1909년 6월 『李朝と全州』가 간행된 것이다. 책의 저자인 福島士朗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책을 서술하기 위한 자료조사의 과정에서 全羅北道 警察部長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고 밝힌 것이나 책의 발간지와 출판사가 전주 西門 안에 있던 '共存舍'이며, 발행자와 인쇄자 모두 전주에 있던 일본인이라는 점, 또 책의 광고들이 모두 전주에 있던 일본인 상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전주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서 책을 출판하게 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李朝と全州』의 집필 동기에 대해 저자는 序와 例言에서 "日韓兩國의 修交가 이에 2천년, 몇 번을 변천한 후 필경 그 宗主權을 장악한 우리 제국은 마땅히 이를 指導啓發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즉 먼저 그 國情을 細察하고 그 眞相을 知悉하는 동시에 그 祖宗의 鄕을 查覈하고 그 鼻祖를 詳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李朝와 全州의 관계를 밝힘과 동시에 全州가 한반도 全土에 대해 어떠한 지위를 점하는가를 연구하여 세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編述"하였다고 밝히고 있다.[15] 즉 조선의 '指導啓發'을 위해 먼저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전주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李朝と全州』라는 서명과 집필의 동기를 보면 이 책은 주로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는 책으로 비추어진다. 정확히 150페이지로 이루어진 『李朝と全州』는 '緖言 — 歷朝沿革略 — 李朝의 沿革略 — 李朝의 鼻祖 — 全州의 由緖 — 全州의 地勢 — 全州沿革略 — 全州의 現狀 — 全州平野의 現狀 — 結論'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를 보면 조선왕조와 전주의 연혁 및 관계에 대한 역사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역사적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 서명에 부합하여 전주와 관련된 역사적 사항을 다루는 부분은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않으며 사실상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1909년 당시 전주의 호구와 경제사정, 주요 관청, 권업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종교기관, 위생기관,

14) 全州府 編, 1942 『全州府史』, 219-220면.

15) 福島士朗, 1909 『李朝と全州』, 序・例言.

가로 등에 관한 사항을 전하는 '全州의 現狀'과 전주와 그 주변에 펼쳐진 농지의 면적과 토질, 일본인들의 농업 경영 상황과 방법, 장래 일본 농민의 이주 전망, 수리시설과 교통기관 등을 다루는 '全州平野의 現狀'이다. 이처럼 『李朝と全州』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는 바, 전반부에서 조선과 전주의 역사를 개관한 이후 후반부에서 전주의 현상과 그 주변 일대의 농업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 全州가 韓國本朝發祥의 靈地라는 것은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중략) 全州는 또 한국의 寶庫라고 칭해지는 三南중에 首南인 全羅道의 中樞이기 때문에 極力으로 소개하는 것이다 (중략) 이 帝都에 버금갈 수 있는 全州의 현상은 현재 어떠한가. 全州 自身으로서 할 수 있는 發展策은 이미 강구하여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지만 (중략) 한국의 寶庫인 이 全州大平野는 길 하나로 겨우 群山港에 통할 뿐 (중략) 창고 속의 보물이 무엇에 의지하여 그 眞價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國民은 國祖의 御鄕인 靈地로 어떤 道路로 와서 그 餘光에 拜할 수 있을까 (중략) 全北의 主腦인 全州는 어떠한 점으로 연구하여도 三南開化의 發源地의 資格이 있다 (중략) 그렇다면 현 政府 정책의 제 一着地는 이 全州를 빼면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은 논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劈頭事業으로서 최신식 교통기관의 설비보다 급한 것은 없다. 하루라도 빨리 全州를 향하는 철도를 만들어야만 한다. 바로 이 한마디가 이 책을 編述한 大目的=大主眼이다(밑줄: 인용자).[16]

『李朝と全州』는 바로 위와 같이 마무리 된다. 이를 통해 볼 때 福島士朗으로 대변되는 재전주 일본인들이 『李朝と全州』를 저술한 목적은 바로 전주를 지나는 철도를 부설해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그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주의 중요성을 부각해야 했으며, 이 때 이들의 눈에 포착된 것은 두 가지, 바로 전주가 조선왕조의 발원지라는 것과 전주 일원에 드넓은 평야가 있어 이곳으로 향후 일본인 농업이민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다. 즉 『李朝と全州』에서 조선왕실과 전주의 관계를 이야기 한 것은 어디까지나 교통기관 설치의 당위를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철도부설을 위한 수단이지만 『李朝と全州』에는 조선왕실과 전주의 관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간략하게나마 조선의 역사를 개관하고

16) 위의 책, 146-149면.

있는데, 이를 보면 조선은 箕子이후 1876년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중국의 번속국이었으며, 개항 이후 동양의 평화를 교란시켰기 때문에 일본은 청,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고 1905년 조선의 종주권을 거두어들였다는 것이다.[17] 이처럼 『李朝と全州』는 당시 일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한국사에 대한 '타율성론'과 일본의 침략을 평화 유지를 위한 조치로 미화하는 시각에 입각하여 한국사를 약술한 후 조선왕실과 전주의 관계에 대한 서술, '李朝의 鼻祖'로 넘어간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역사적인 변천이나 주요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주에 있는 '慶基殿', '肇慶廟', '肇慶壇'의 위치와 유서를 간략히 서술하고 관련된 기록을 일본어로 번역해 제시해 두는 것이다. 일예로 태조 이성계의 御眞이 안치된 慶基殿에 대해서는 徐居正의 '拱北樓記'나 '本州學記' 등을 제시하며 태조의 어린 시절이나 임진왜란 당시 어진의 이동에 대한 내용을 곁들인다거나, 전주 이씨의 시조인 李翰의 묘소라고 알려진 肇慶壇에 대해 영조가 명을 내려 표식을 세웠으며, 고종대에 石碑(大韓肇慶壇碑)를 세운 사실을 전하고 있는 식이다.[18]

한편 『李朝と全州』의 저자 福島士朗은 例言에서 "본편을 편술하는 데에 참고서를 구하기 어려웠다. 남아 있는 것은 겨우 輿地勝覽 가운데 數頁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료의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全北 警察部長 宮川 警視의 도움"으로 "차람하기 어려운 등사본을 볼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19] 즉 『李朝と全州』에서 활용한 자료는 신증동국여지승람, 宮川 警視에게 빌린 고기록, 또 대한조경단비와 같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금석문 정도라고 하겠다. 실제로 '全州의 地勢'와 '全州沿革略'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부의 山川條 및 建置沿革와 동일하며, 대한조경단비는 비의 전문을 일본어로 번역해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李朝と全州』에서 활용한 자료 가운데 미지의 것은 宮川 警視에게 빌린 고기록이다. 그

17) 위의 책, 7-23면.

18) 전주 이씨의 시조인 李翰 부부의 위패를 봉안한 肇慶廟에 대해서는 그 위치와 건물에 대해 "경기전 배후에 一路 떨어져" 있으며, "경기전에 비해 협소하다"는 설명 이외에 그 역사적 연원이나 변화 또는 이와 관련된 기록의 제시와 같은 것도 없다.

19) 福島士朗, 앞의 책, 序・例言. '宮川'은 宮川武行으로, 1907년 8월 이래 조선에 경찰로 활동했으며, 1908년 7월부터 전라북도 경찰부장 겸 전주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인물이다(「官報」『황성신문』 1908년 7월 29일).

런데 이는 아마도 전주지역의 읍지인 『完山誌』인 것으로 보인다. 『李朝と全州』에서 조선왕실과 전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拱北樓記'나 '本州學記' 등이 모두 『完山誌』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09년에 간행된 『李朝と全州』는 전주에 정착한 일본인들에 의해 강점을 전후한 시점에서 전주에 교통기관 부설의 필요성을 주장할 목적으로 편찬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업에 있어 전주의 중요성과 더불어 전주와 조선왕실의 관계를 부각해 철도 부설의 당위를 설명하는 것이었고, 그러한 만큼 활용한 사료도 신증동국여지승람, 전주 지방의 금석문, 『完山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李朝と全州』는 전주에 대한 역사적 정리라기보다는 전주의 연혁과 농업 상황 등을 제시하는 소개서에 가깝다고 하겠다.

한편 『李朝と全州』가 간행된 이후 전주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시도한다거나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소개서는 발간되지 않았으며, 다만 전라북도 전체를 소개하는 책에서 전주가 간략히 언급되는 정도였다. 일예로 1914년 11월 17일부터 2주간 개최된 제1회 全羅北道物産共進會의 준비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연혁과 산업을 소개하기 위해 全北日日新聞社에서 간행한 『全羅北道案內』(1914)를 보면 전북 주요 지역의 현황을 소개하는 가운데 전주의 행정적 연혁을 5~6줄 정도로 간략히 정리·제시할 뿐이다.[20]

이러한 사정은 조선의 儒林들에 의해 작성된 읍지의 경우도 비슷했다. 강점 다음 해인 1911년 全州鄕老齋에서 『完山誌』라는 이름의 사찬읍지를 발간했지만, 이는 몇몇 가문들이 지역 사족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가문을 선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동시대적인 정보는 매우 적은 반면 이 책의 간행에 관계된 집안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인물조의 등재 인물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21] 그나마 1911년 『完山誌』 이후로는 전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읍지는 제작되지 않았다. 다만 1922년 이래로 충남 공주의 유학자 李秉延이 각 지역의 유림들과 협력

20) 全北日日新聞社, 1914 「府郡勢一斑: 全州郡」 『全羅北道案內』, 全1-2면. 이러한 사정은 全北日報社에서 1933년 전북지역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한 『全北案內』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북의 주요 지역을 설명하며 전주의 역사에 대해서는 행정적 변화를 4~5줄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全北日報社, 1933 『全北案內』, 21면).

21) 김철배, 앞의 논문, 60-61면.

하여 전국 각지의 읍지를 제작해 엮은 『朝鮮寰輿勝覽』과 1934년 井邑鄕校의 후원 아래 井邑의 武城書院과 長城의 筆巖書院이 주관하여 호남 주요 지역의 읍지를 엮은 『湖南誌』, 이 두 地誌에 전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朝鮮寰輿勝覽』과 『湖南誌』의 저자들은 東國輿地勝覽 이후 地誌·邑誌 편찬의 연장선상에서 최근까지의 지역사정을 알리는 것이 편찬의 동기라고 밝히고 있다.[22] 그러한 만큼 이 두 저작은 조선시대의 지지·읍지와 마찬가지로 편목별로 지역의 사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全州府에 비해 人物에 관련된 편목들이 세분화되고 분량도 급증하는 특징을 보인다.[23] 이처럼 인물조가 세분화되고 수록 인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강점 이후에도 지방의 조선인 유림들에게는 地誌·邑誌의 편찬을 통해 가계를 부각시키는 것이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상을 공고히하며 서로 연대하는 수단으로서 유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朝鮮寰輿勝覽』이나 『湖南誌』가 편찬된 궁극적인 이유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시대 이래 통치 혹은 교화를 위해 지지 등이 편찬되는 속에서 전주 지방의 경우 관찬 지지 편찬이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강점을 전후하여 일본인에 의한 전주 지방에 대한 소개서와 유림에 의해 사찬읍지가 간행되었다. 그렇지만 강점 이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한 역사서나 읍지는 물론 지방소개서조차 간행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개항 이후 호남 내에서조차 전주의 위상이 약화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가운데 1942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全州府史』가 간행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全州府에서는 이 시점에서 『全

22) 李秉延, 跋文 『朝鮮寰輿勝覽』 ; 吳學根, 序 『湖南誌』(『朝鮮寰輿勝覽』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허경진·강혜종, 앞의 논문을, 『湖南誌』에 대해서는 林地煥, 앞의 논문, 2-6면을 참조).

23)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全州條는 23개의 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人物에 관계된 것은 名宦, 人物, 孝子, 烈女 4개이다. 반면 朝鮮寰輿勝覽의 全州條는 총 49개의 편목 가운데 人物에 관계된 것이 27개(儒賢, 學行, 遺逸, 儒行, 文行, 勳臣, 原從勳, 功臣, 名臣, 名宦, 淸白, 善行, 慈善, 忠臣, 節義, 孝子, 孝婦, 孝女, 貞烈, 女行, 文科, 司馬, 武科, 蔭仕, 壽職, 贈職, 名釋), 湖南誌의 경우 66개의 편목 중 33개(生進, 文科, 武科, 忠義, 儒林, 南臺, 遺逸, 文章, 薦除不就, 后妃, 駙馬, 文衡, 相臣, 將臣, 封君, 士禍, 休退, 筆苑, 畵家, 原從功臣, 贈謚, 贈職, 學行, 聞望, 蔭仕, 武科, 壽職, 別恩典, 賑恤, 塚墓, 孝行, 烈行, 孝婦)가 人物 관련으로, 일제 하 유림에 의해 편찬된 지지·읍지에는 절반 이상의 편목이 人物에 해당한다.

州府史』를 편찬했으며, 이 책이 『李朝と全州』 등과 같은 과거 지방소개서와의 차별점은 무엇이었을까. 또 『全州府史』에서는 전주의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였을까?

3. 『全州府史』의 편찬과 특징

1) 『全州府史』의 편찬 동기와 구성

1942년을 기해 발간된 『全州府史』는 강점 이후로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서는 물론 지역 소개서도 없는 가운데 지방청에서 주관하여 '~史'의 이름으로 편찬된 전주에 대한 최초의 서적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전주부청에서는 『全州府史』를 편찬했을까?

『全州府史』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道廳 혹은 府廳이 주도하여 '道史'나 '府史'라는 이름을 건 책자를 발간한 것은 전주부만의 일은 아니었으며, 지방청에서 '府史' 내지는 '道史'를 편찬한 이유에 대해서는 식민통치의 '善政', 곧 지방청의 치적과 각 지방의 부원개발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24] 『全州府史』에서도 그러한 측면은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당장 『全州府史』의 첫 머리에서 당시 府尹 黑木儀壽圭는 "조선합병 이후에는 전라북도의 도청소재지로 市勢가 눈에 띄게 발전하였고, 지금은 전례 없는 성황을 보이며 실로 호남 제일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大全州의 면모를 발휘하며 약진하는 중"이라며[25] 강점 이후 全州의 발전상을 자랑스럽게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통치를 과시하고 부원 개발이나 지배를 위해 지방의 실정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굳이 '府史' 혹은 '道史'라는 이름으로 강점 이전, 태고 이래의 역사를 모두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통치의 과시와 부원 개발을 위한 지방 정보의 확보는 지방 소개서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청이 주도하여 지역 소개의 차원을 넘어 '道史'나 '府史'라는 이름을 걸고, 지역의 역

24) 최혜주, 앞의 논문, 175-180면.

25) 全州府 編, 「序」 앞의 책, 1면.

사를 정리하는 책자들은 대부분 1930년대 이후에 발간된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 『木浦府史』(木浦府廳)가 1930년에 발간된 이래 『仁川府史』(仁川府廳, 1933), 『京城府史』(京城府廳, 1934), 『群山府史』(群山府廳, 1936), 『平安北道史』(平安北道廳, 1938), 『大邱府史』(大邱府廳, 1943) 등이 그러하다. 이처럼 1930년대 이후 단순한 지역 소개를 넘어서 '道史'나 '府史'라는 이름의 지방사들이 편찬된다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지방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시점에 총독부에서 향토성·지방성 혹은 향토교육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20년대 말 경제대공황으로 인하여 농촌문제가 심각해짐과 동시에 만주사변 이후 전쟁의 기운이 완연해짐에 따라 총독부에서는 전쟁 수행을 위해 '내선일체'와 더불어 향토성·지방성을 강조하고 그 양성을 위해 향토교육을 역설하였다. 이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방(향토)에 대한 소속감을 키움으로서 농촌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전쟁 수행을 위한 조선인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였다.[26] 즉 지방의 외부를 향해 지역의 발전상을 과시하고 부원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차원에서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하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 내부로 눈을 돌려 지방민들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에 대한 애정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청에서는 개항 이후 일본인의 유입이나 강점 이후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그 지방의 역사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1930년대 이후 지방청에 의한 지방사 편찬으로 귀결되었으며, 『全州府史』 역시 이러한 흐름에 위치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아울러 『全州府史』를 편찬하게 된 계기로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전주가 府로 승격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개항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심이 형성됨에 따라 전주의 위상은 약화되었다. 1914년 4월 1일을 기해 총독부는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목적으로 강점이후 처음

26) 1930년대 및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향토, 지방 및 향토교육의 강조에 대해서는 문지은, 앞의 논문 : 김도경, 2010「태평양전쟁기 식민지 조선에서의 향토 담론」『우리말글』50 : 한지은, 2010「식민지 향토 개념의 중층성」『한국학연구』34를 참조.

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새롭게 12개의 府를 설정하였다. 당시 府로 설정된 곳은 주로 개항과 철도의 개통으로 일본인들의 이주가 많았던 지역으로, 재조일본인의 居留民團이 있던 곳이 주를 이루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시대 전주에 비해 행정적 중요성이 떨어졌던 군산과 목포는 1914년 府가 되었지만 전주는 面으로 전락했으며,[27] 府로 승격한 것은 이로부터 20여년이나 지난 1935년 10월 1일을 기해서였다. 초대 全州府尹 高堂建二는 "공연히 群山과 裡里와 같은 새로운 곳에서 패권을 잡은 데다가 道廳을 이전한다는 소문이 부지불식간에 있었다."고[28] 할 정도로 강점 이후 전주의 위상은 흔들렸던 것이다. 府로의 승격은 1930년대 이후 전주의 관민이 원하던 바로 계속 청원이 있었지만[29] 예산 문제로 부결되다가, 결국 1935년 10월 1일을 기해 全州府가 탄생하였다.[30]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전주부에서는 府廳開廳式은 물론 전주관민을 동원한 旗行列, 각종 축하연, 불꽃놀이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31] 府로 승격된 전주의 위상과 역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全州府史』의 편찬에도 착수한 것이다. 全州府에서 『全州府史』의 편찬을 개시한 것은 府로서 승격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36년 5월이었다. 그렇지만 1936년 8월에 있었던 '大洪水'와 1937년 '支那事變 勃發로 인한

27) 1914년 府制 실시에 대해서는 손정목, 1992 『韓國地方制度·自治史硏究』(上), 一志社, 124-129면을 참조. 1913년 말 현재 전주, 군산, 목포의 인구수는 전주가 19,495명으로 9,262명인 군산, 13,327명인 목포보다도 많았다. 하지만 일본인의 수는 전주 2,627명, 군산 4,742명, 목포 5,628명으로 전주가 제일 적었다(朝鮮總督府, 1913 『朝鮮總督府統計年報』).

28) 高堂建二, 1936 「全州府」 『朝鮮』 254(昭和11年 7月), 朝鮮總督府, 48면.

29) 「全州代表者府昇格陳情, 總督府 要路歷訪」 『東亞日報』 1933년 8월 29일(조간).

30) 「全州, 大田, 光州의 三邑 올봄엔 府로 승격. 예산을 대장성에서 승인」 『朝鮮日報』 1935년 1월 8일(조간) ; 「전주인의 숙망, 府로의 승격, 마침내 확정」 『朝鮮中央日報』 1935년 1월 12일(석간). 한편 1935년 전주가 府로 승격된 이유로는 도청소재지로서 도 행정의 중심이라는 점, 마산부·군산부에 비교해 戶數나 인구수에 손색이 없고, 상공업 도시로서 발전가능성이 풍부하다는 점이 꼽혔다. 특히 1936년 12월 곡성에서 순천간 慶全北部線(전라선)이 연장되어 이미 개통되어 있던 광주선과 순천으로의 연결이 예상됨에 따라 전주에 전매지국, 片倉제사방적주식회사를 비롯한 공장이 설치되어 상공업 도시로 변모하고 있던 것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전주역사박물관, 2003 『일제시대 전주부 신설관계 자료집』, 10-13면).

31) 「記念祝歌二重奏 全州府制의 實施日에 始政廿五週記念祝典」 『每日申報』 1935년 9월 22일.

庶務의 忙殺', 더불어 편찬을 맡은 이의 와병 등으로 인해 편찬이 지연되어,[32] 1941년 8월이 되어서야 원고를 완성, 인쇄에 들어가[33] 1942년에 빛을 보게 되었다.

한편 지방, 향토에 대한 애착이 강조되며 1930년대 이후 증가하던 지방청에서의 역사 편찬에 대하여 한 재조일본인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 朝鮮施政 30여년 (중략) 각 地方도 個性이 존중되고 새로운 의식에서 각각 地方的 역할, 鄕土的 색채가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地方行政官廳도 溫故知新의 차원에서 府史, 沿革史의 필요가 인정되어 近年 각지에서 地方史 編纂計劃을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중략) 그런데 從來 朝鮮의 地方史나 鄕土誌는 그 地方의 개척자, 선각자 내지는 신문기자 등의 손으로 된 것이 많았다 (중략) 그러나 최근 유력한 都邑에서는 地方史 編纂에서 從來의 단순한 향토소개에 그치지 않고, 史的變遷過程에 있어서 향토의 위치를 究明하는 데에 뜻을 두고, 編纂者를 선정하는 데에도 가능한 史學家나 經驗者 등의 專門家에게 위촉하고, 상당한 시간을 두어, 기초자료의 수집, 퇴고에 만전을 기하여 史料로서 신뢰할 수 있는 귀중한 地方史가 연이어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밑줄: 인용자).[34]

지방청에서의 지방사 편찬이 증가한 이유를 식민통치의 장기화에 따라 각 지방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 결과라면서, 그 특징을 전문적인 역사가나 역사편찬에 경험이 있는 이들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사료에 근거하여, 지방소개가 아닌 '史的變遷過程', 즉 역사적 변천을 드러낸다고 정리하고 있다. 실로 1930년대 이후 쏟아져 나온 각지의 지방청에서 발간한 지방사들을 보면 당시 학계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이들의 이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35]

이러한 양상은 여기에서 주목하는 『全州府史』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全州

32) 全州府 編, 「例言」 앞의 책, 5면.

33) 「全州府史完成 尨大! 一千貢」 『每日申報』 1941년 8월 6일.

34) 久慈畔二郎, 1941 「地方文化の記錄: 朝鮮の鄕土誌・地方史誌」 『朝鮮行政』 226(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本部 編), 41면.

35) 일예로 1934년에 발간된 『京城府史』의 경우 小田省吾가 참여했으며, 1938년에 간행된 『平安北道史』는 稻葉岩吉이 직접 편찬하였다. 또 『全州府史』 발간 다음 해에 나온 『大邱府史』의 경우에도 末松保和가 편찬을 총괄하였다. 이처럼 전문적인 역사학자들이 기용되었던 만큼 이들이 지방색을 드러내는 방식은 태고부터 당대까지 그 지방의 역사적 변천과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였다.

府에서는 편찬 업무를 조선총독부 도서관장 荻山秀雄에게 의뢰하여 그의 지휘하에, 1910년대 중반 조선에 교사로서 부임해와 1930년대 이래로는 전라북도 일대 주요 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龜田正과 並松茂를 촉탁으로 기용하여 진행하였는데, 특히 龜田은 주로 '경성'에 머무르며 府史 편찬에 필요한 사료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1938년 6월 이후로 龜田, 荻山의 건강 문제로 잠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며 결국 1940년 4월 荻山을 대신해 문학박사 小倉親雄을 기용해 그가 전체적인 감수와 더불어 '제1편 通說' 부분의 집필을 담당하여 완성하였다.[36] 이처럼 『全州府史』는 '조선총독부 도서관장', '학교장', '문학박사' 등의 칭호에서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획득한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인물은 업무를 총괄하여 감수를 맡았던 荻山과 그를 대신하게 되는 小倉이다. 1909년 京都帝國大學 史學科 졸업한 荻山은 조선총독부 최초의 역사편찬사업인 '조선반도사' 편찬사업에 참여하여 고려시대의 서술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비록 '조선반도사' 편찬은 중단되었고, 荻山은 조선총독부 도서관의 설립(1923)과 함께 도서관장에 취임하였지만, 그는 1920년대 당시 재조일본인들이 결성한 최대의 조선사 관련 단체인 朝鮮史學會에서 출간한 조선사에 대한 통사인 『朝鮮史講座 一般史』에서 고려시대 부분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朝鮮의 信使나 高麗 顯宗의 즉위, 灌佛會 등에 관한 논고를 발표하며 조선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다. 또 그를 대신한 小倉도 이와 비슷한 길을 걸어 왔다. 小倉 역시 1936년 京都帝大 史學科를 졸업하고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근무했던 인물로, 특히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조선의 서지학이나 인쇄문화에 대해 연구·정리한 모리스 쿠랑의 『韓國書誌』 등을 번역하는 등 주요한 사료들에 대한 소양이 깊었던 인물이다.[37] 또한, 후술하겠지만 小倉이 직

36) 全州府 編, 「例言」 앞의 책, 5면.

37) 小倉親雄의 이력과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日本圖書館研究會, 1992 「小倉親雄先生の略歷」·「主要な業績」 『圖書館界』 43-6을 참조. 흥미로운 것은 1945년 이후 小倉의 행보이다. 1945년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小倉은 日本圖書館研究會理事와 理事長을 역임하고 京都大學 교육학부의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사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1946년에는 京都市史編纂員으로서 京都市史 편찬에 관여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全州府史』의 편찬 경험이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접 집필을 맡은『全州府史』의 제1편 통설은 전주에 대한 통사로 전주의 역사를 정리한 부분이다. 아마도 이는 荻山 자신이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全州府史』편찬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게 되자 동문으로서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조선의 서지에 밝은 小倉에게 일을 넘긴 것이 아닐까 한다. 즉『全州府史』는 재전주 지방민이 아닌, 이른바 '근대 역사학'의 세례를 받고 조선에 근무하며 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험과 조선의 사료들에 대한 이해가 상당했던 이들이 주도하며 완성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全州府史』가 완성되었을 당시 세간에서는 이에 대해 "1천 4백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풍부히 실은 것"으로 "그 資料 수집의 고심은 여간이 아니었다"며[38] 전주에 대한 역사서로서의 가치와 사료 활용에 주목했던 것이다. 실제로『全州府史』를 살펴보면 다양한 사료와 연구 성과들을 활용하고 있으며, 사료를 활용할 때면 미주를 붙이거나 서술의 중간에 그 출전을 꼼꼼히 밝히고 있다.

이처럼 역사학 전공자들의 주도하에, 다양한 사료를 이용하여,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 이른바 '실증'에 입각하여 서술된『全州府史』는 '第1編 通說 — 第2編 地誌 — 第3編 府政 — 第4編 各說'의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第1編 通說'은 과거 편찬되었던『李朝と全州』나 전북 소개지에 간략하게 실린 전주에 대한 언급, 혹은 조선인들이 발간한 地誌의 전주 부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태고 이래 동학농민전쟁 당시까지의 전주의 역사를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서술한 부분으로 전주에 대한 통사이다. 반면 第2編 이하는 역사적인 내용보다는 전주의 각종 시설물이나 명소 등과 같이 과거 편찬되었던 읍지에서 다루던 사항과 강점 이후 전주의 변화와 발전상을 제시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물론 과거 조선 또는 전주의 모습에 대한 역사적 내용과 그 변천의 모습이 간략하게 제시되기는 한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강점 이후 전주의 발전상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성격을 띄는『全州府史』제2편 이하는 가장 먼저 전주 境域의 변화를 약술하고 다음과 같이 끝맺고 있다.

38)「全州府史完成 尨大! 一千貢」『每日申報』1941년 8월 6일.

> 조선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왕가 발상의 신령스런 땅으로 숭상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었으며, 그 500년 동안의 惡政이 일반 백성들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었는가는 감영을 비롯하여 여러 官倉의 많은 건축물들이나 전주천의 교량, 제방 등이 일단 퇴폐해지면 재용 부족으로 몇 십년 동안이나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는 궁핍한 정세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병합 이후에는 수 차례에 걸친 쇄신 끝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지금과 같이 경역을 사방으로 복구, 확장하여 날이 갈수록 호구가 늘어나 도시가 번성하고 있음은 고려 초 이후 1천년 동안 찾아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 상서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밑줄: 인용자).[39]

위의 인용문은, 강점을 퇴락하던 조선의 역사에서 발전의 계기로 평가하는, 이른바 '식민사관'의 전형이 전주라는 지방을 통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전주는 고려왕조 개창 이후 천 여년간 쇠퇴를 거듭했으며, 강점은 이를 끊을 수 있는 계기였다는 것이다. 『全州府史』 제2편 이하는 이렇게 강점 이전을 정리한 후에 강점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전주의 위치와 경계의 변화를 서술한 후 '第2編 地誌'에서는 '地文'과 '人文'이라는 2개의 章을 두어 자연·인문지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위해 조선총독부의 지질 조사 자료나 총독부 촉탁이었던 今村鞆, 善生永助 등의 조사자료와 저술 등을 활용한다거나[40] 전주부 호적계 직원들의 조사자료와 구술을 제시하여 최근의 상황을 전했지만 境域과 그 변천, 지형 등에 대한 서술은 『完山誌』와 같은 과거의 읍지나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 전주조의 서술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으로, 府史 편찬 당시 전주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서술로서의 성격은 약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서술 경향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第3編 府政'이다. 편명에도 드러나듯이 全州府의 현황을 神社, 宗教, 教育, 社會, 保健, 保安, 交通으로 나누어 장별로 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은 특히 전주가 府로 승격된 이후의 발전상을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때문에 주로 1930년대 이후 특히 府로

39) 全州府 編, 앞의 책, 152-153면.

40) 『全州府史』 地誌편에서 활용한 주요한 저서로는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 編, 1925~1938 『朝鮮地質圖』 ; 今村鞆, 1914 『朝鮮風俗集』, 斯道館 ; 高橋亨, 1921 『朝鮮人』, 朝鮮總督府 學務局 ; 今村鞆, 1934 『朝鮮の姓名氏族に關する研究調査』, 朝鮮總督府 中樞院 ; 善生永助, 1934 『朝鮮の姓』, 朝鮮總督府 등이 있다.

승격한 1935년 이래의 각종 통계들을 제시하여 전주부의 발전상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41]

마지막 '各說'이라는 편명이 붙은 第4編은 生業, 鐵道, 通信, 官廳, 學校, 會社, 新聞社, 人物, 廟·殿·壇·祠, 古刹, 樓亭, 名勝舊蹟, 天災地變 등의 章으로 구성되었는데, 주요 산업과 교통·통신, 학교, 회사 등은 그 위치를 제시하고 각종 영업 성적과 변화를 보여주는 최근의 통계들을 제시하는 한편 명승고적을 비롯한 유적, 천재지변 등에 대해서는 『完山誌』, 『湖南邑誌』 속의 '完山誌', 『증보문헌비고』나 『동국여지승람』의 전주조의 해당 편목을 그대로 전제 혹은 간략히 정리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第1編 通說을 참고"하라고[42] 서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全州府史』의 제2편에서 제4편까지는 '府史'라기 보다는 '府誌'에 가깝다고 하겠다. 비록 근대적 서술체계인 장절체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 地誌·邑誌와 같은 편목별 구성과 다름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방점은 현재의 全州府에 있으며 과거의 상황은 어디까지나 全州府의 현황을 드러내기 위해 간략히 제시되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과거, 특히 강점 이전의 역사는 퇴보의 과정으로 압축되는 가운데 전주의 연혁이나 경계 변화 및 역사적 명소·유적 등은 과거의 地誌·邑誌, 또는 『全州府史』 제1편에 근거하여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전주의 현황이나 명소를 제시하는 것은 이전의 『李朝と全州』를 필두로 한 전주를 소개하는 기록물, 조선인들에 의해 편찬된 『朝鮮寰輿勝覽』과 『湖南誌』의 전주 관련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들로, 『全州府史』는 다만 이러한 사항을 과거의 읍지와 지지만이 아니라 최근의 통계를 활용했다는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全州府史』는 이처럼 '府誌'로서의 성격을 보이지만,[43] 그럼에도 불구하고 '府

41) 물론 3편에도 역사적인 내용이 종종 포함된다. 일예로 조선의 지방제도를 개관하는 '上古より韓國併合に至る時代' 또는 교육제도를 개관하는 '韓國併合以前の教育と全州に於ける各種教育機關'과 같은 부분이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과거의 조선 혹은 전주의 상황을 개관하는 부분에서는 荻山秀雄, 小田省吾, 高橋亨 등의 저작을 인용하여 간략히 정리하고, 전주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것이 있을 경우에만 『完山誌』로 대변되는 과거 읍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42) 『全州府史』에서 廟와 名勝舊蹟, 樓亭, 寺刹 등을 제시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이러한 구절이 붙어 있다.

史'라는 서명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第1編 通說'이다. 비록 『全州府史』에서 차지하는 분량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태고 이래 현재까지 전주의 역사를 정리한 이 부분은 전주에 관한 읍지나 소개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全州府史』만의 특징이자 '府史'라는 서명에 가장 잘 부합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全州府史』의 다른 부분에서 "第1編 通說을 참고"하라는 것에서 드러나듯이 『全州府史』에서 제시한 역사적 사실의 기반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全州府史』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로 이 부분은 다른 편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사료에 근거하여 역사적 글쓰기가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전주에 대한 최초의 통사라고 할 수 있는 『全州府史』의 제1편 통설에서는 전주의 역사를 어떻게, 또 무엇을 근거로 정리하였는가?

2) 실증된 전주의 역사

4개의 章으로 이루어진 『全州府史』의 제1편 통설은 다양한 사료들을 활용하여, 역사에 전주가 드러난 이후 동학농민전쟁까지의 전주를 다루고 있다. 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3) 한편 '府史'라는 서명으로 간행되었으면서도 당시의 현황을 전하는 '府誌'로서의 성격을 띄는 것은 『全州府史』 간행 이듬해인 1943년에 출판된 『大邱府史』도 마찬가지이다. 『大邱府史』는 '沿革編', '府政編', '特殊編'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府政編'은 대구부 설치 이후 대구의 변화상과 현황에 대한 것으로 '府誌'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全州府史』에 비할 때 『大邱府史』는 역사학적·학술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 먼저 대구에 대한 통사로 역사학적 글쓰기가 이루어진 '沿革編'은 세 편중 가장 많은 분량일 뿐만 아니라 그에 버금가는 분량의 '特殊編'은 당시 東京帝大, 京城帝大 교수 등이 자신들의 전공과 관련지어 대구를 연구한 논문 10편을 싣고 있는 것으로 역사학은 물론 고고학, 경제사학 등에 걸쳐져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출간된 '府史'들은 府의 현황 역시 제시하는 '府誌'로서의 성격도 띄었으며, 『全州府史』는 『大邱府史』에 비해 '府誌'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大邱府史』에 대해서는 정상우, 2014 앞의 논문을 참조.

〈표 1〉『全州府史』'第1編 通說'의 장절 체제와 활용된 자료

장절명	활용된 사료
序文	東國輿地勝覽, 八域誌, 四佳集, 完山誌, 東國李相國全集, 全琫準供招, 日省錄
第1章 沿革의 槪要와 新羅一統時代以前의 全州	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魏書(北魏書), 南齊書, 東文選,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日本書紀, 海東繹史 地理考, 東國通鑑
第2章 後百濟國와 全州	湖南邑誌, 東國輿地勝覽, 完山誌, 金堤郡 金山寺 事蹟, 三國史記, 東國通鑑, 三國遺事, 高麗史, 光州邑誌, 海東繹史 地理考, 八域誌, 扶桑略記, 本朝文粹
第3章 高麗時代의 全州	高麗史, 東國輿地勝覽, 高麗史節要
第4章 李朝와 全州	
第1節 所謂璿源肇發基地로서의 全州	李王家系譜, 完山誌, 增補文獻備考, 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 紀年兒覽(紀年便覽), 肇慶墓慶基殿大修理謄錄, 肅宗實錄,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英祖實錄, 哲宗實錄, 世宗實錄地理志, 朝鮮金石總覽, 日省錄, 肇慶壇濬慶基永慶墓營建廳儀軌, 高麗史, 牧隱藁, 龍飛御天歌 大韓肇慶壇碑
第2節 全州史庫	完山誌, 太祖實錄, 東國輿地勝覽, 世宗實錄, 全州府邑誌, 成宗實錄, 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
第3節 壬辰丁酉의亂과 全州	完山誌, 懲毖錄, 亂中雜錄, 朝鮮寺刹史料(奉安 御容事蹟), 井邑縣志,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東國輿地勝覽, 月沙集, 光海君日記, 增補文獻備考, 肅宗實錄, 紀年兒覽, 江華府誌, 國朝寶鑑, 仁祖實錄, 孝宗實錄
第4節 全州邑城의 發生과 變遷	光海君日記, 世宗實錄地理志, 全州府邑誌, 增補文獻備考, 完山誌, 朝鮮金石總覽, 東國輿地勝覽, 肅宗實錄, 慶基殿殿儀 全州華山書院碑 (伊東面 華山里 所在) 南固鎭事蹟碑(上關面 大聖里 南固寺 舊 西門內 所在 憲宗12年) 南關鎭刱建碑(完州郡 上關面 龍岩里 所在 李太王10年 癸酉)
第5節 東學變亂과 全州	日省錄, 全琫準供招

※ 이 표는 1942년 간행된『全州府史』(全州府 編)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全州府史』 제1편 통설은『삼국사기』와『고려사』,『세종실록지리지』 및『동국여지승람』의 전주조, 완산지 등을 제시하여 전주의 지리적 위치를 설명하고 이른바 '南方의 巨鎭'이자 '朝鮮 先系의 땅'으로서 '東學變亂' 당시까지도 전주가 중요시 되었다는 것을 제시하며 전주의 역사적 위상을 개관한 '序文' 이후 '沿革의 槪要와 新羅一統時代以前의 全州'에서는 중국측 사료(魏書와 南齊書)와 일본측 사료(日本書紀)를 통해 신라의 통일 이전에는 전주가 백제의 땅이었다는 것을

확증한 이후 후백제, 고려, 조선의 순으로 전주의 역사를 정리하고 있다.

한편 앞서 서술했듯이 강점과 府로의 승격 이후 전주의 발달상을 전하기 위해 『全州府史』에서는 제2편 이하를 서술하며 과거의 역사를 쇠퇴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강점 이후의 발달상을 "고려 초 이후 1천년 동안 찾아 볼 수 없었던 현상"으로[44] 정리했다. 이는 고려조 이전에는 전주가 번영했지만 고려 건국 이후 이러한 번영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全州府史』의 통설에서도 드러난다. 위의 표를 보면 고려시대에 해당하는 제3장은 『高麗史』, 『高麗史節要』, 또 모든 시대에 공통적으로 활용된 『東國輿地勝覽』 이외에 별다른 사료를 활용하지 않은 반면 後百濟 당시의 전주를 설명하는 2장은 보다 풍부한 사료를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대사에 해당하는 사료가 고려시대의 그것에 비해 적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려 이전을 서술함에 있어 고려시대보다 더 심혈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全州府史』의 통설에서 고려시대에 대한 서술은 훈요 10조 가운데 "車峴 이남 공주강 밖"의 사람들을 기용하지 말라는 8조를 제시하고 "이는 바로 과거 후백제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시작된다. 즉 고려조는 태조 이래 전주를 나쁘게 여겼기에 전주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며,[45] 고려시대의 전주에 대한 사항은 행정적 변화를 정리하는 수준으로 매우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다.

반면 後百濟 당시의 전주는 내용이 풍부하다. 이는 甄萱이 전주에 도읍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1914년 간행 『全羅北道案內』에서도 "孝恭王 당시 甄萱이 수도를 여기에 세워 후백제라고 칭했"다는 것이 제시되었지만,[46] 『全州府史』에서는 다양한 사료들을 이용해 이를 특필하고 있다. 『全州府史』에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견훤조, 『光州邑誌』, 『湖南邑誌』 속의 '完山誌', 『동국여지승람』, 『完山誌』 등을 제시하여 '甄萱의 自立'과 세력 팽창을 서술하고, 백성을 전주로 이입시켜 전주를 '후백제의 慶州'로 만들고자 했다며 견훤이 전주를 얼마

44) 全州府 編, 앞의 책, 152-153면.

45) 全州府 編, 앞의 책, 34면.

46) 全北日日新聞社, 1914「府郡勢一斑: 全州郡」『全羅北道案內』, 全1면.

나 중요시 했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견훤의 외교에 대한 서술이다. 『全州府史』에서는 이 부분을 서술하며 견훤이 吳, 越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며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당시 唐 말기, 당 황실이 퇴폐해지고,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던 시대에 재빠르게 후당의 봉책을 받고 거란·오월과 통하여 이들 국가들과 친교를 유지"하여 고려 태조에 맞서려는 했던 견훤의 구상에 의한 것이다. 『全州府史』에서는 이러한 견훤의 의지를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 가장 선명하게 간파할 수 있다"며 이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47] 바로 922년과 929년 견훤의 사자가 일본에 '來聘'한 사건이다. 이 두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全州府史』에서는 책의 다른 곳에서 활용되지 않는 扶桑略記, 本朝文粹와 같은 일본측 사료를, 그것도 本朝文粹의 경우는 전문 그대로를 제시하여 서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견훤은 "후백제가 일본을 받드는 것은 마치 아버지를 모시는 만큼 두텁고 유아가 어머니를 사모하는 정에 유사"하다며 적극적으로 일본에 '朝貢'하길 원했다는 것이다. 즉 견훤은 전주를 수도로 삼은 이후에 吳越, 거란, 일본 등 주변 국가에 "조공하고 원조를 얻"어 "반도 통일의 대업"을 꾀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당시 일본은 신라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견훤이라는 신라 "藩王의 朝貢"을 거절하여 견훤의 뜻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특히 마지막으로 일본에 사신을 보낸 것이 실패 한 929년 이후 견훤은 고려 태조에게 30여 군을 빼앗기고(930), 아들과 내분에 휩싸이며(935)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서술되어 있다.[48] 즉 『全州府史』의 통설에서는 이처럼 견훤이 전주에 도읍한 이래 주변 여러 나라, 특히 일본을 가까이 하고자 했지만 이에 실패해 멸망한다고 서술한 후 다음을 덧붙이며 2장 '後百濟國와 全州'를 마무리하고 있다.

〈일본에 보낸 甄萱의〉 使者 彦澄 등이 (중략) 목숨을 바쳐 견훤의 조공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요청하였고 또 견훤 스스로 '견훤이 宿心이 있어서 일

47) 全州府 編, 앞의 책, 24-26면.

48) 全州府 編, 앞의 책, 26-29면. 여기서 활용한 일본사료는 정확히 『扶桑略記』 제24권, 延喜 22년(922) 6월 5일 : 『本朝文粹』 12권, 牒 答新羅返牒 : 『扶桑略記』 제24권, 延長 7년(929) 5월 17일조이다.

> 본국을 섬기고자 합니다 (중략) 하루라도 신하로 불리길 원합니다'라고 서술한 부분은 즉 삼한 통합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원조를 바라는 마음이 강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며, '예전의 죄악은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 데서는 백제와 일본의 긴밀한 관계, 즉 백제 멸망 이전의 일본의 원조를 강하게 상기시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밑줄: 인용자).[49]

이는 과거 일본은 조선의 남부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왕조들은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얻었다는, 고대사에 대한 '식민사관'적 인식이 후백제로 확장되어 전주의 역사를 정리함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후삼국 통일에 있어 일본의 위상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재차 부각하고 있다. 더군다나 후백제 이전 백제 역시 일본의 '원조'를 받았다며, 후백제를 넘어 과거 조선에 일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환기시키며 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전주가 후백제의 수도였던 만큼 전주의 역사를 정리하며 후백제와 전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全州府史』에서는 이 부분을 식민사관에 입각한 한일관계사의 맥락에서 조직하고 양지의 밀접한 관계를 부각하였다.

한편 목차에서도 드러나듯이 『全州府史』의 통설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사료를 활용하여 서술된 부분은 조선시대에 대한 서술이다. 5개의 절로 나뉘어 정리된 이 부분의 節名을 보면 전주와 조선왕실의 관계를 밝힌 후 全州史庫나 邑城과 같은 주요 시설물이나 전주에 영향을 미친 임진·정유재란, 동학농민전쟁과 같은 사건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주는 조선시대 이래로 '豊沛'의 땅으로 알려진, 조선왕실의 근원을 이루는 곳으로, 『全州府史』는 그 시작부터 전주를 '朝鮮 先系의 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한 만큼 『全州府史』에서 조선시대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전주를 서술함에 있어 모든 시기를 관통하는 핵심은 조선왕실 선계의 땅으로서 전주를 특징지우는 慶基殿과 肇慶廟, 그리고 全州史庫이다.

먼저 1절 '所謂璿源肇發基地로서의 全州'에서는 전주가 전주 이씨의 관향이기 때문에 이곳에 경기전을 건립하고 太祖의 御眞을 보관하게 된 과정과 태조 이후

49) 全州府 編, 앞의 책, 30면.

전주의 행정적 위상이 강화되는 사항, 또 영조대 전주 이씨의 시조 李翰 부부의 위패를 모시는 肇慶廟의 건립 및 고종대 肇慶廟 앞에 이를 기리기 위해 大韓肇慶壇碑를 세운 내력을 서술하고 있으며, 2절에서는 全州史庫의 설치 과정과 그곳에 보관되었던 典籍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50] 이러한 내용은 절의 이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3절 이하는 그렇지 않다. 물론 이 부분은 정유재란 당시 일본 장군 小早川隆景이 전주를 공략·점령한 사실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렇지만 이처럼 전쟁 당시 전주의 상황을 간략히 전하고 나서 "이렇게 되자 慶基殿의 太祖睟容과 全州史庫의 典籍이 전주성 안에 있어서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모셔 전주에서 나와 이동"했다며,[51] 전쟁 당시 太祖 睟容과 全州史庫 典籍의 이동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전쟁 당시를 전하는 기록들과 井邑縣志 및 江華府誌를 이용하여 태조의 睟容과 史庫 典籍의 이동 과정이 임진·정유재란 당시의 전주에 대한 서술의 전부라 하겠다.

> 開城의 穆淸殿, 京城의 永禧殿, 永興의 濬源殿, 平壤의 永崇殿, 慶州의 集慶殿 등 5殿에 봉안되어 있던 太祖의 御眞 및 京城 春秋館의 實錄閣, 星州·忠州 두 史庫의 典籍은 모두 불타 버렸지만 오직 全州 慶基殿의 御眞과 全州史庫의 實錄만은 완전무결하게 보전되었다 (중략) 壬辰·丁酉 양란 이후 혼란했던 全州도 光海君 6年 太祖睟容의 還安을 계기로 안정을 찾아 (후략)[52]

이처럼 전주의 위상은 太祖의 御眞과 史庫의 實錄을 보전한 것에서 확인되며, 太祖의 御眞이 전주로 돌아옴으로서 전주의 의미가 다시 완전해졌다는 것이다. 또 모든 史庫의 실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全州史庫의 실록만이 남았기 때문에 이후 이를 저본으로 하여 실록의 복각이 이루어졌다며, 全州史庫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당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全州史庫 實錄의 현황을 제시하는 것으로 壬辰·丁酉再亂과 전주에 대한 서술은

50) 全州府 編, 앞의 책, 39-74면.
51) 全州府 編, 앞의 책, 76-90면.
52) 全州府 編, 앞의 책, 82면.

끝을 맺는다. 즉 『全州府史』에서 壬辰·丁酉再亂 당시의 서술은 전쟁 시 전주의 상황이라기보다는 御眞과 史庫 實錄의 이동·보존 과정에 가깝다.

이에 이어 전쟁 당시 파괴·소실된 全州府城을 비롯한 각종 閣, 樓, 堂 등의 증·개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제4절이다. 한편 앞서 서술하였듯이 조선시대 전주지역에 대한 地誌는 18세기 중반 이후로 다수 출간되었다. 그러한 만큼 이 부분은 두 차례 전란 이후 城, 樓閣 등에 대한 개수에 대해 잘 전하고 있는 『全州府邑誌』, 『完山誌』의 활용이 두드러진 부분이다. 이처럼 조선 후기 전주의 地誌에 기반하여 전란 이후 주요 시설물의 변화를 설명하고 "최근들어 全州市街의 發達에 큰 影響을 준 것은 말할 것도 없이 1894년의 東學變亂이었다"며,[53] 제5절 '東學變亂과 全州'로 넘어 간다.

동학농민전쟁은 전주의 역사를 서술하며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제5절은 바로 이 사건을 '東學變亂', 또 당시 농민들을 '東學黨'으로 호칭하며, 日省錄과 全琫準供招를 제시하며 이 사건을 정리하고 있다. 먼저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일본 外務相이었던 陸奧宗光의 저서 『蹇蹇錄』과 강점 이래 줄곧 총독부 내무국에 재직한 渡邊彰이 1919년에 발간한 『天道教と侍天教』에 의거하여 동학은 "천주교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조선에서는 포교를 용인받을 수 없는 것" 내지는 "洋術을 답습한 邪學"으로 규정하고, "全州는 東徒에게나 京軍에게나 確守해야만 하는 중요 거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후 兩軍의 격전이 예정되어 있었다"며[54] 전주성을 둘러싼 농민군과 관군의 교전 및 외국군대의 파견, 전봉준의 효수 등을 제시하며 끝을 맺고 있다. 그렇지만 제5절은 이와 같은 농민전쟁의 과정만이 아니라 당시 이에 대한 고종의 대응 역시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보은집회 이후 전라감사에게 '豊沛'의 지역으로 전주의 특성을 강조하며 안민책과 토벌책의 강구를 엄명했다거나, 동학농민군이 전주에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慶基殿의 太祖 御眞과 肇慶廟에 모신 位牌의 안부에 대해 매우 근심하였으며, 전라도 관찰사가 이를 부근의 산성(威鳳山城)으로 이안했다는 것, 또 왕은 이를 듣고 전라도 관찰사에게 위안제와 고유제를 행하도록 명했다는 등[55]

53) 全州府 編, 앞의 책, 103면.

54) 全州府 編, 앞의 책, 107-110면.

농민전쟁 당시 慶基殿 御眞과 肇慶廟 位牌의 안위에 대한 내용이 전주를 둘러싼 농민군과 관군의 전투와 더불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全州府史』의 통설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전주에 대한 서술은 慶基殿 睟容, 全州史庫 實錄 및 肇慶廟 位牌의 역사라 하겠다. 즉 이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주는 곧 慶基殿 睟容, 全州史庫 實錄 및 肇慶廟 位牌였으며, 전주는 이를 안치했고, 전란들 속에서도 이를 잘 보존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의미가 확인되는 것이다.

3) 전주의 역사를 증명하는 자료들: 중앙사와 지방사의 관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주에 대한 최초의 통사인 『全州府史』의 통설은 후백제 시대와 조선 시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백제 시대는 '식민사관'에 입각한 한일관계를 통해, 조선시대에는 慶基殿 太祖 睟容, 肇慶廟 位牌, 全州史庫 實錄의 유래와 이동 및 보관에 집중하며, 이것들을 전주의 역사적 특징으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全州府史』는 다양한 사료의 구사를 통해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인 '실증'을 실현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荻山과 小倉과 같은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훈련받았고, 조선의 역사에 대해 서술경험이나 서지학적 지식을 갖춘 이들에 의해, 또 학교장을 역임한 인물이 서울에 머물며 사료를 수집하여 전달한 결과일 것이다. 실로 〈표 1〉을 보면 상당한 사료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36년 5월부터 시작된 『全州府史』의 편찬은 5년여가 지난 1941년 8월 원고가 완성되어 출판에 들어갔음은 앞에서 언급했다. 그런데 과연 이 5년 동안 〈표 1〉에 제시된 모든 사료들을 읽고, 선별 · 정리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표 1〉에 제시된 사료들 가운데는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조선의 서적과 사료들에 대해 익숙하고, 조선에 오랫동안 머문 이들이라며 그 입수나 활용이 어렵지 않았을 사료들이 다수 있다. 특히 甄萱의 일본 朝貢의 근거 사료인 扶桑略記, 本朝文粹와 같은 일본사료들은 편찬자들에게 보다 익숙했고, 이용이 편리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대사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사료의 양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역사학 전공자나 조선의 고문헌과 서지에 해박한 이들이라면

55) 全州府 編, 앞의 책, 110-111면, 114면, 119-120면.

문헌자료의 활용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료의 활용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선시대의 경우이다. 조선시대의 사료들은 종류와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全州府史』의 통설에서 조선시대를 기술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료들의 경우 조선의 서지를 잘 알고 있으며 總督府圖書館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全州府라는 관권의 후원을 받는 상황에서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사료들이 다수이다. 이러한 것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전국 地誌라 할 수 있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나 『八域誌』의 전주조이다. 한편 상당한 분량이 되지만 기전체식 구성인 『海東繹史』는 地理考에서 광주와 전주 부분만 활용하고 있으며, 紀年兒覽의 경우도 태조의 가계를 서술하며 '璿源世譜'만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료들은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어 찾기도 쉽고 실제 분량 역시 얼마 되지 않는 것들이다. 또 『全州府史』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完山誌』와 『全州府邑誌』, 견훤의 자립을 서술하며 활용한 『湖南邑誌』와 『光州邑誌』, 전주사고 실록의 이동을 서술하며 제시한 『井邑縣志』 등의 지방 邑誌는 전라북도청이 있던 전주에서라면 입수가 어렵지 않았을 것이며, 또 이들 읍지류 역시 편목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용이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 입수 및 활용이 용이했던 자료라 할 수 있던 사료로는 금석문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全州府史』에서는 한말까지 이어진 태조 선계의 땅으로서 전주의 의미를 드러내고자 고종의 명으로 세운 '大韓肇慶壇碑'의 전문을 싣고 있다. 그런데 『全州府史』의 통설에서는 이 외에도 全州府城 및 주요 시설물들의 증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全州華山書院碑', '南固鎭事蹟碑'와 '南關鎭刱建碑'의 비문을 제시·활용하고 있다. 이는 『全州府史』 편찬 당시 전주 일원에 남아 있던 것들로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아니었다.[56] 금석문과 더불어 전주 현지에 있어 활용이 쉬웠던 사료로는 '金堤郡 金山寺 事蹟'과 '肇慶墓慶基殿大修理謄錄', '慶基殿殿儀'가 있다. 전주에서

56) '全州華山書院碑', '南固鎭事蹟碑', '南關鎭刱建碑'의 경우 『全州府史』에 각각 '伊東面 華山里 所在', '上關面 大聖里 南固寺 舊 西門內 所在', '完州郡 上關面 龍岩里 所在'라고 소재지까지 밝히고 있다. 한편 肇慶壇은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 3호이며, 그러한 만큼 肇慶壇과 大韓肇慶壇碑는 잘 보존되어 있다.

멀지 않은 김제군에 있는 금산사는 견훤이 창건했다고 구전되는 사찰인데 '金堤郡 金山寺 事蹟'은 1917년에 발행한 것으로 금산사의 내력과 종탑, 불상 등의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肇慶墓慶基殿大修理謄錄', '慶基殿殿儀'는 고종대 조경단 설치 과정이나 전란과 동학농민전쟁 당시 慶基殿 太祖 御眞의 이동에 대한 설명의 근거인데, 서술 과정에서 밝히고 있듯이 慶基殿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어서 府廳이 주도한 역사편찬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료였다.

『全州府史』의 통설에서는 전주나 그 일원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수집이 용이했을 사료들도 몇 가지 확인되는데, 조선총독부의 각종 조사 결과물들이 그것이다. 가장 먼저 조선 왕실의 가계를 설명하며 제시한 『李王家系譜』가 그러한 것이다. 이는 시조 李翰부터 純宗까지 조선 왕실의 계보를 기재한 문서로 李王職에서 정리해, 이미 1910년 말이면 작성이 거의 완료되어, 활용이 용이했던 사료이다. 또한 통설에는 태조가 건국 후 자신의 가계를 정리하며 咸鏡南道 咸興郡에 '咸興朝鮮桓祖定陵神道碑'(환조정릉신도비)를, 肇慶壇 설립 당시 목조가 살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梧木臺에 '穆祖大王舊居遺址'(全州梧木臺朝鮮太祖高皇帝駐蹕址碑)를 세웠다고 언급하며 각주에 그 비문을 제시하고 있는데, 『全州府史』에서는 이 두 비문은 모두 '朝鮮金石總覽'을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다. 『朝鮮金石總覽』은 葛城末治의 주도로 조선의 주요 비문의 탁본을 엮어 총독부에서 1919년에 간행한 것으로, 이미 다른 연구에서도 자주 활용되던 자료였다. 한편 『全州府史』에서는 정유재란 이후 慶基殿의 중건과 太祖 御眞의 奉安 사정을 '奉安 御容事蹟'이란 사료에 근거하면서, 이것이 1911년 조선총독부 내무부에서 각 도별로 조선의 주요 사찰 관련 사항과 사찰에서 간행한 사료들을 묶어 엮은 『朝鮮寺刹史料』에 실려 있음을 밝히고 있다. 『全州府史』의 편찬을 총괄하며 감수를 하던 이들이 조선총독부 도서관장과 그 소속 직원이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李王家系譜』, 『朝鮮金石總覽』, 『朝鮮寺刹史料』 등의 서적들은 총독부 도서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한 사료나 서적들만큼 입수와 활용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전주의 역사를 정리한다면 반드시 찾아보아야 할 사료들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全捧準供招'이다. 『全州府史』 통설에서 동학농민전쟁 당시 농민군의 움직

임에 대한 서술은 상당 부분 이에 의거하여 작성되어 있다. 통설에서는 '全琫準供招'에 대해서도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사본"이라고 소장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통설에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밝히고 활용한 사료가 두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종대 肇慶壇을 설치의 서술 근거로 활용된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와 전주사고에서 보관하던 典籍의 종류와 수량의 전거로 제시된 '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이다. 이러한 경성제대 도서관 소장 사료들에 대해서도 조선총독부 도서관장이었던 荻山이나 조선의 서지에 조예가 있던 小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57] 아마도 『全州府史』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촉탁 龜田이 '경성에 머무르며' 수집한 사료들에는 이러한 경성제대 도서관 소장의 사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全州府史』에는 조선의 서지에 조예가 있는 역사학 전공자로서 府廳이라는 관권의 도움을 받는데다가 총독부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다면 입수·활용이 쉬웠던 사료들이 다수이다. 그렇지만 『全州府史』의 통설에서 활용한 사료들이 모두 그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술을 위한 중심 사료로서 가장 빈번히 제시되고 있는 것은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이다. 편년체인 이들 사료는 모든 부분을 읽고 정리해야만 원하는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성질의 사료이다. 사료에 관련된 서지적 사항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실증에 익숙하더라도 한 두 명의 일본인이 실록이나 일성록과 같이 한국식 한문으로 된 방대한 사료를 짧은 시간 내에 읽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사를 선별해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하겠다.[58]

그런데 『全州府史』에서 활용한 일성록의 기사들은 고종대에 한정된다는 특징

57) '肇慶壇濬慶墓永慶墓營建廳儀軌'와 '全羅道全州史庫曝曬形止案'은 사료의 성질상 규장각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잘 알려져 있듯이 강점 이후 취조국과 참사관실을 거쳐 학무국에서 관리하던 규장각도서는 1928년부터 1930년 말에 걸쳐 경성제대 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총독부 도서관장 내지 그곳에 근무하던 荻山이나 小倉은 누구보다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았을 인물이며, 이는 자료 수집을 보다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58) 한국의 한문 사료의 해독은 당시 일본인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편수회의 경우 조선인들이 이를 정서해 주어야 해독이 가능했다고 한다(정상우, 2012 「『朝鮮史』(朝鮮史編修會 간행)의 편찬과 사건 선별 기준에 대하여: 『朝鮮史』 제4·5·6편을 중심으로」 『사학연구』 107, 307면).

을 보인다. 이미 1935년에 李王職에서 『高宗實錄』을 발간했기 때문에 1936년 이후로 시작된 『全州府史』 편찬에 『고종실록』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고종대만은 일성록에 의거하는 것은 의아하다. 그런데 당시 고종대의 주요 사건을 일성록을 중심으로 정리한 책이 발간되어 있었다. 바로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이다. 총 6편 35권으로 구성되어 기원전 58년부터 1894년 6월까지 조선의 역사의 주요사건을 편년에 따라 제시하고 이를 전하는 사료를 알려주는 『朝鮮史』는 1938년 3월을 기해 모든 편권이 출판되었다. 이 『朝鮮史』는 편년순으로 주요한 사료를 요약하여 사건을 알려주는 '綱文'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사료 또는 해당 사건을 전하는 다양한 사료들(서책)의 이름과 서책 내에서 사료의 위치를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의 역사에 대한 사료집 · 색인집이라 하겠다. 특히 『朝鮮史』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4편 이하로, 이는 35권 가운데 24권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全州府史』에서 주요한 사료로 활용한 왕조실록과 일성록은 물론 승정원일기 등의 편년 사료, 각종 地誌, 법전류 등의 관찬자료는 물론 개인들의 다양한 문집들, 또 제시한 사건을 전하는 일본과 중국의 사료와 경우에 따라서는 서구의 사료들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요한 사건들을,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료에 근거하여 제시하는 『朝鮮史』의 조선시대 해당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료는 朝鮮王朝實錄이다. 거의 모든 綱文에는 첫 번째 사료로 왕조실록을 들고 있으며,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이 남아있는 시기면 이들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朝鮮史』에서 오직 고종대 만큼은 왕조실록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강문의 첫 번째 근거로 제시되는 것이 일성록이다. 즉 『朝鮮史』에서 고종대만은 일성록을 중심사료로 해서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59] 이처럼 고종대 관련 사항만은 왕조실록이

59) 왕조실록을 비롯한 각종 관찬 편년사료에 대한 정리 · 발췌작업은 이미 강점 직후부터 舊慣調査事業의 일환으로 개시되었으며, 이러한 작업은 1915년 '朝鮮半島史 編纂事業' 당시 개인 문집으로 확대되었다. 『朝鮮史』 편찬사업은 1922년 조선사편찬위원회 구성 이후 개시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료 정리 · 발췌의 결과와 노하우 등을 활용하였다(정상우, 2012 앞의 논문). 『고종실록』 · 『순종실록』이 완성된 1935년 당시 『朝鮮史』는 사료정리가 완료되고 綱文의 작성과 출간이 한창일 때이다. 『朝鮮史』의 고종대가 왕조실록이 아닌 일성록에 근거한 이유는 『朝鮮史』를 위한 사료 정리 당시에는 『고종실록』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아닌 일성록에 근거하는 『全州府史』 통설의 사료 인용 경향은 『朝鮮史』와 유사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통설에서 인용한 일성록의 기사들은 모두 『朝鮮史』에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60]

〈표 2〉 『全州府史』에 실린 日省錄의 기사와 『朝鮮史』의 비교

『全州府史』에서 활용한 日省錄의 기사	해당 日省錄의 『朝鮮史』 수록 위치
日省錄 고종 계사(1893) 3월 21일 계묘	제6편 4권 p.1017.
日省錄 고종 계사(1893) 3월 25일 정미	제6편 4권 p.1018.
日省錄 고종 갑오(1894) 4월 24일 경오	제6편 4권 p.1061.
日省錄 고종 갑오(1894) 4월 29일 을해	제6편 4권 p.1064.
日省錄 고종 갑오(1894) 5월 3일 기묘	제6편 4권 p.1068.
日省錄 고종 갑오(1894) 5월 15일 신묘	제6편 4권 p.1075.

『全州府史』에서 일성록을 활용하여 서술한 곳은 동학농민전쟁 당시의 전주를 전하는 부분으로, 모두 6개의 기사이며 모두 『朝鮮史』에 실려 있다. 그런데 『全州府史』와 『朝鮮史』의 일치는 일성록에만 그치지 않는다. 더욱 방대한 분량으로 『全州府史』에서도 더 자주 활용된 왕조실록의 경우도 그러하다. 『全州府史』에서 활용한 왕조실록의 기사들을 『朝鮮史』에서 찾아보면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全州府史』에 실린 조선왕조실록의 기사와 『朝鮮史』의 비교

『全州府史』에서 활용한 朝鮮王朝實錄의 기사	해당 실록의 『朝鮮史』 수록 위치
太祖實錄 권1 원년 8월 병진조	제4편 1권 p.10.
太祖實錄 권3 2년※정월 정묘조(3년)	제4편 1권 pp.33~34.
太宗實錄 권17 9년 2월 경인조	제4편 1권 p.495.

60) 『全州府史』에서 日省錄을 인용한 곳은 동학농민전쟁 관련 부분이다. 그런데 일성록의 연대를 모두 '癸巳'라고 하고 있으며, 이는 동학교도들이 전주성 입성이 있던 1894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예로 〈표 2〉에서 세 번째 기사인 '日省錄 고종 갑오 4월 24일 경오'는 '日省錄 고종 계사 4월 24일 경오'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는 1894년의 상황을 전하는 나머지 세 개의 기사도 동일하다. 이는 『全州府史』 편찬자의 실수로 보인다.

太宗實錄 권19 10년 5월 경진조	제4편 1권 p.541.
太宗實錄 권20 10년 9월 임진조	제4편 1권 p.551.
太宗實錄 권24 12년 8월 임신조	제4편 2권 p.54.
太宗實錄 권24 12년 11월 병신조	제4편 2권 p.59.
世宗實錄 권72 18년 5월 정축조	제4편 3권 p.500.
世宗實錄 권85 21년 6월 임인조	제4편 3권 p.591.
世宗實錄 권86 21년 7월 기유조	제4편 3권 p.592.
世宗實錄 권96 24년 6월 신해조◇(무신)	제4편 3권 p.669.
世宗實錄 권97 24년 7월 병자조	제4편 3권 p.671.
世宗實錄 권102 25년 10월 갑오조	제4편 4권 p.35.
世宗實錄 권110 27년 11월 경인조	제4편 4권 p.126.
世宗實錄 권110 27년 12월 정사조	제4편 4권 p.129.
成宗實錄 권21 3년 8월 경진조	제4편 5권 p.144.
宣祖修正實錄 권24 25년 4월 30일	제4편 9권 pp.445~446.
宣祖實錄 권46 26년 12월 신해	제4편 10권 p.320.
宣祖實錄 권51 27년 5월 임진	제4편 10권 p.368.
宣祖實錄 권52 27년 6월 무진	제4편 10권 p.397.
宣祖實錄 권53 27년 7월 무인	제4편 10권 p.400.
宣祖實錄 권55 27년 9월 경진	제4편 10권 p.422.
宣祖實錄 권55 27년 9월 신사	제4편 10권 p.423.
宣祖實錄 권116 32년 8월 정묘	제4편 10권 p.846.
宣祖實錄 권182 37년 12월 정미	제4편 10권 p.1045.
光海君日記 권81 6년 8월 경자	제5편 1권 p.192.
仁祖實錄 권45 22년 8월 신유	제5편 3권 p.209.
孝宗實錄 권11 4년 11월 무술	제5편 3권 p.472.
肅宗實錄 권18 13년 2월 기사	제5편 5권 p.518.
英祖實錄 권49 15년 3월 무진	제5편 8권 p.627.
英祖實錄 권117 47년 10월 갑술, 을해, 병자	제5편 9권 pp.687~688.
英祖實錄 권117 47년 10월 기축	제5편 9권 p.689.
哲宗實錄 6권 5년 10월 무오	제6편 3권 p.427.

※ 『全州府史』에서 태조 2년에 完山의 城隍을 啓國伯이라고 칭했다고 서술하고 그 근거로 『太祖實錄』 권3, 3년 정월 정묘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는 『全州府史』의 서술에도 드러나듯이 1년 전인 태조 2년의 일이며, 실제로도 『太祖實錄』 권3, 2년 정월 정묘조에 전하도 있어, 『全州府史』에서 오기한 것이라고 하겠다.

◇ 『全州府史』에서는 慶基殿 명칭의 유래를 『世宗實錄』 권96, 24년 6월 무진조를 근거로 설명하였다. 그렇지만 확인해 본 결과 이를 전하는 것은 『世宗實錄』 권96, 24년 6월 신해조로, 이 역시 『全州府史』에서 오기한 것이라고 하겠다.

위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全州府史』에서 활용한 모든 왕조실록의 기사들 역시 『朝鮮史』에 실린 것들이다. 이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위 표에서 이탤릭으로 표시한 『宣祖修正實錄』의 활용 방식은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全州府史』에서는 임진왜란 당시 왕실의 피난과 서울 주요 전각의 화재, 이에 따른 춘추관의 각조 실록 및 사초, 승정원일기 등의 소실을 서술하며 그 근거로 '『宣祖修正實錄』 권24, 25년 4월 30일'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宣祖修正實錄』에는 선조 25년 4월 30일 기사는 없다. 이는 수정실록이 일별이 아닌 월별로 특정한 일자 하루에 한 달치의 일을 통째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宣祖修正實錄』의 선조 25년 4월의 일은 모두 4월 14일에 해당하는 '癸卯'에 실려 있다. 『全州府史』에서 『宣祖修正實錄』 직접 보고 활용했다면 그냥 '4월'이나 '4월 14일'로 제시했을 것이다. 한편 『朝鮮史』 역시 『全州府史』와 같은 내용을 전하며 그 근거 사료를 '『宣祖修正實錄』 권24, 25년 4월 30일'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즉 동일한 사항을 전하며 날짜를 잘못 기록하는 실수까지도 『朝鮮史』와 『全州府史』는 같은 것이다. 이를 보면 『全州府史』 편찬 당시 『朝鮮史』에 기반하여 사료에 접근했다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는 왕조실록과 일성록과 같은 편년체 자료만이 아니라 조선시대를 서술하며 활용한 개인문집이나 다른 사료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全州府史』의 통설에서 활용된 『四佳集』, 『東文選』, 『牧隱藁』, 『懲毖錄』, 『亂中雜錄』, 『月沙集』, 『江華府誌』, 『國朝寶鑑』, 『龍飛御天歌』 역시 『朝鮮史』의 이곳저곳에서 수차례 활용된 것들이다.[61] 『朝鮮史』와의 관련성은 조선시대를 벗어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全州府史』에서 전주의 역사적 특성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甄萱의 대일외

61) 이러한 류의 자료들은 왕조실록이나 일성록과 같은 편년체 자료와는 달리 정확히 『朝鮮史』의 몇 페이지에서 활용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全州府史』에서 이러한 자료들은 전주의 위치나 유래, 역사적 상황의 개관 등과 같이 연월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을 기술하며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 개인 문집의 경우 편년체가 아니어서 편년에 따라 기술된 『朝鮮史』의 어느 부분에서 이용하였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단 정상우, 2011 『조선총독부의 『朝鮮史』 편찬사업』,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88-215면에 『朝鮮史』에서 활용한 사료들의 목록을 각 편, 권별로 제시하고 있어, 이와 대조해 보면, 『全州府史』에서 활용한 사료들이 『朝鮮史』에서의 활용 여부와 활용된 편권을 확인해 볼 수는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를 서술하는 부분에서 근거로 제시된 『扶桑略記』의 2개의 기사와 『本朝文粹』 1개의 기사 역시 『朝鮮史』 제2편에서 정리·제시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료적인 측면에서 볼 때 『全州府史』는 『朝鮮史』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62]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全州府史』에서 전주의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들은 전주와 그 일원에서 입수와 활용 역시 용이한 것들과 총독부 도서관에 오래 근무하며 조선의 서지 상황에 대한 지식이 많았던 이들이라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물론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全州府史』에서 전주의 역사적 특징으로 꼽고 있는 후백제 시대와 조선시대의 서술의 경우 그 역사적 흐름을 잡아주며 서술의 근간이 되는 사료들, 특히 왕조실록과 일성록과 같은 편년자료들은 『朝鮮史』로 대변되는 총독부의 역사편찬사업의 결과, 획득과 활용이 용이한 것이었다.

자료명	『朝鮮史』에서 활용한 編卷	자료명	『朝鮮史』에서 활용한 編卷
四佳集	第4編 5卷	月沙集	第4編 5, 7, 8, 9卷
東文選	第3編 1, 2, 3, 4, 6卷 第4編 1, 2, 3, 4, 5, 7卷	江華府誌	第5編 2卷
牧隱藁	第3編 5, 6, 7卷	國朝寶鑑	第4編 1, 2, 3, 4, 5卷 第5編 3, 4, 5, 6, 7, 8, 9卷 第6編 3卷
懲毖錄	第4編 9, 10卷		
亂中雜錄	第4編 9卷	龍飛御天歌	第3編 7卷 第4編 1卷

62) 『全州府史』에서 견훤의 조공사를 일본이 거절한 사건의 근거로 제시된 『扶桑略記』의 기사 2개[卷24, 延喜22年(922) 6月 5日, 延長7年(929) 5月 17日]와 『本朝文粹』 卷12의 牒(答新羅返牒)은 각각 『朝鮮史』의 제2편 395면과 425면에 실려 있다. 그렇지만 고대사와 고려시대는 이 시기를 전하는 사료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全州府史』를 편찬하면서 『朝鮮史』를 활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全州府史』의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朝鮮史』를 참조했을 가능성은 높다. 또 『全州府史』에서 분량은 얼마 되지 않지만 고려시대에 대한 서술에서 활용된 『高麗史』의 경우, 『全州府史』에서 정확한 일자나 사건을 제시한 6건은 『朝鮮史』에도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역시 『全州府史』 간행 이전, 전주의 연혁을 정리했던 몇 줄의 소개 글에서도 제시하고 있어 『朝鮮史』를 활용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또 고려시대의 경우 『全州府史』 편찬을 초기부터 담당했으며, 서언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는 荻山이 고려시대에 대한 통사적 서술과 몇 편의 연구를 발표한 인물이어서, 그의 도움으로 서술에 필요한 『高麗史』와 같은 사료에 대해 조언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4. 결어

지금까지 1942년 全州府에서 주관하여 편찬한 『全州府史』를 중심으로 전주 지역의 지방사지와 『全州府史』의 편찬 양상과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全州府史』가 全州府의 역사를 정리한 '史'로서의 성격만이 아니라 당시 全州府의 현황을 전하는 '誌'로서의 성격 역시 강하지만 일제 하 지방사의 정리 양상에 천착하다 보니 당시 전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어를 대신할까 한다.

조선시대 이래로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통치·교화를 위해 地誌를 편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주의 건치연혁, 행정적 위상, 호구, 토지, 중요 시설물, 명승, 인물 등에 대한 사항이 파악되었다. 18세기 중반 이래 20세기에 접어들어서까지 '全州府邑誌', 전라도지역의 읍지들 속에 '完山誌'라는 이름으로 전주 지역의 읍지가 편찬된 것이다.

한편 개항 이후 일본인들이 유입됨에 따라 이들에 의한 지역 소개서가 다수 간행되었는데, 재전주 일본인들에 의해서도 1909년 『李朝と全州』라는 책자가 간행되었다. 전주에 정착한 일본인들이 이 책을 저술한 목적은 전주에 철도나 도로 부설과 같은 교통기관의 설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때문에 이 책은 전주 일원의 평야와 여기서 일본인 농업경영의 상황과 전망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전주가 조선왕조 선계의 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통기관 설치를 위해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시된 측면이 강하다. 그나마 『李朝と全州』 간행 이후 전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역사서는 물론 지역 소개서조차 간행되지 않았다. 이는 개항 이후 전라도 내에도 군산, 목포 등과 같은 새로운 도심이 성장하고 전주의 위상이 약화된 결과일 것이다. 다만 全北日報와 같은 일본인들이 주축을 이루는 단체들에서 전북을 소개하는 책자들을 발간할 경우 전주의 사정도 설명되는 정도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지방의 유림으로 대변되는 조선인들에 의한 읍지 발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강점 이후 전주에 대한 역사서는 물론 지역소개서나 읍지조차 발간되지 않는 가운데 全州府에서 주관하여 『全州府史』를 발간한 것이다. 全州府에서 『全州府史』를 발간한 이유는 우선 다른 地方廳과 마찬가지로 식민통치 및 해당

관청의 '善政'과 지역의 발전상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1930년대 이래 농촌의 궁핍화를 해결하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총독부에서 지방성, 향토색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방청에서는 지방 주민들에게 자기 고장에 대한 애착을 심어주기 위해 '府史'·'道史'를 편찬하고 있었는데, 全州府 역시 이러한 경향을 잇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全州府史』가 1942년에 모습을 드러낸 또 하나의 이유는 1935년 10월 1일을 기해 전주가 府로 승격했다는 것이다. 강점 이후 개항장이나 철도역 부근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상이 약화되었던 전주가 府로 승격됨에 따라 全州府에서는 그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府史의 편찬에 착수했던 것이다.

1936년 5월부터 시작된 『全州府史』의 편찬은 당시 다른 관찬지방사 편찬도 그러했듯이 지방민이 아닌 전문역사가의 손을 빌려 이루어졌다. 『全州府史』의 편찬을 총괄하며 전주의 역사를 집필한 것은 荻山秀雄과 小倉親雄으로, 이들은 京都帝大에서 사학을 전공했으며, 조선총독부 도서관장 또는 그곳에 근무하며, 조선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다거나 조선의 사료에 대한 풍부한 서지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다.

총 4편으로 구성된 『全州府史』의 제2편 이하 제4편까지는 고려 이후 전주의 역사를 쇠퇴로 전제하고, 강점 이후 특히 府로 승격한 이후의 변화상을 부각하는 가운데 전주 전래의 명승·고적 등을 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성과 서술은 조선시대 이래의 지지·읍지와 유사한 것으로 『全州府史』라는 서명에 맞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全州府史』라는 서명에 부합하며 '실증'이라는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을 구사해 태고 이래 동학농민전쟁까지 전주의 통사를 제시하며, 다른 부분의 역사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제1편 통설이다.

전주에 대한 최초의 통사라 할 수 있는 제1편은 왕조 순으로 전주의 역사를 정리하였는데, 후백제와 조선시대에 대한 부분이 서술의 중심을 이룬다. 즉 식민지기 역사적으로 전주의 지방색은 후백제의 수도였다는 점과 조선 왕실의 관향이었다는 점에서 찾아졌던 것이다.

후백제시대의 전주는 견훤의 외교, 특히 일본으로의 조공 노력과 좌절, 그에 따른 패퇴로 그려졌다. 이는 고대 한반도의 남부 지역은 일본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식민사관'이 『全州府史』라는 지방사 차원에서 환기된 것이자 전주의

역사를 '식민사관'에 입각한 한일관계사의 맥락에 위치짓는 것이라고도 하겠다. 조선시대의 전주에 대해서는 무려 5절로 나누어 세세하게 정리하고 있지만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慶基殿의 太祖 睟容, 肇慶廟와 여기에 안치된 位牌, 全州史庫의 典籍에 대한 사항이다. 즉 전주 자체의 변화상이나 역사적 사정이 아닌 睟容, 位牌, 史庫 典籍의 역사가 곧 전주의 역사로 치환되었다. 이처럼 전주의 역사적 특성은 일본 우위의 한일관계와 전주 자체보다는 睟容, 史庫 典籍, 位牌의 이동에서 발견·정리되었다.

이렇게 정리된 전주의 역사는 다양한 사료에 의해 실증되었다. 『全州府史』에서 활용한 자료들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자료, 역대의 地誌·邑誌류에서 조선시대 개인들의 문집은 물론 조선왕조실록과 일성록과 같은 왕실의 편년 사료까지를 포괄한다. 이러한 사료들을 확인해 보면 역사 전공자들, 특히 조선의 서지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총독부 도서관과 全州府라는 관권을 배경으로 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하지만 조선시대 개인문집이나 서술의 중심을 이루는 사료들, 특히 가장 많이 사용된 왕조실록과 일성록과 같은 편년자료는 조선사편수회에서 간행한 『朝鮮史』를 통해 활용하였다. 즉 어려운 한문으로 서술된 엄청난 분량의 사료들을 직접 읽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로 작성된 『朝鮮史』에서 제시한 사건·사료에 근거해 전주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즉 『全州府史』는 전주의 역사를 견훤과 후백제를 중심으로 하여 식민사관에 입각한 한일관계사로서, 또 慶基殿·肇慶廟·肇慶壇과 全州史庫의 역사로 치환시켰다. 이렇게 정리된 전주의 역사는 전주와 그 일원은 물론 전주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해명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왕조실록·일성록을 비롯한 다양한 사료에 의해 보증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선사편수회의 『朝鮮史』로 대변되는 중앙의 역사편찬 - 식민지의 아카이브들은 『全州府史』의 '실증성'을 보장하는 근거로 작용하였다.

한편 『全州府史』는 최근까지도 '전주에 대해 가장 잘 기록해 놓은 종합역사책'으로[63] 높게 평가받고 있으며, 해방 이후 1960년대부터 주기적으로 간행되는 『全州市史』의 원형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다.[64] 실제로 해방 이후 전주시에서 처음

63) 「전주부사, 전주를 가장 잘 기록한 '종합역사책'」 『全北日報』 2009년 2월 23일.
64) 김철배, 앞의 논문, 34면.

으로 간행한 1964년판 『全州市史』는 구성과 역사 정리의 방식, 활용한 사료에서 『全州府史』와 유사한 점이 엿보인다. 총 6편으로 이루어진 1964년판 『全州市史』는 第1編 歷史的 考察에서 전주의 역사를 정리해 '史'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第2編에서 第6編까지는 전주의 자연·인문지리적 상황, 市勢, 관청 및 문화적 시설들, 명승고적과 주요한 인물을 제시하는 '誌'로서의 성격을 보이는데, 이러한 구성은 비록 編이 증가했지만 『全州府史』와 유사하다.[65]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역사를 제시한 제1편은 『全州府史』의 통설에서 특필했던 후백제와 일본의 관계나 '東學變亂' 같은 표현은 사라졌고, 동학농민전쟁 이후에도 '反日鬪爭과 全州'라는 장을 설정하여 전주에서의 의병투쟁과 3·1운동을 서술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그 목차는 상당히 비슷하다.[66] 전주의 역사적 특성을 후백제의 수도, 慶基殿, 全州史庫 등에 두고, 그 보존과정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만큼 『全州市史』의 서술을 뒷받침하는 사료가 『全州府史』에서 활용한 것과 일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全州府史』가 해방 이후에 간행된 『全州市史』의 원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해방 후 분단과 전쟁과 같은 혼란 속에서 전주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자료의 발굴과 지역사에 대한 연구가 희박한 가운데 그나마 『全州府史』가 자료를 제시하며, 이른바 '실증'에 근거한, 유일한 전주에 대한 통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이유로 『全州府史』는 해방 이후까지도 영속하는 생명력을 획득했던 것이다.

주제어 : 『全州府史』, 荻山秀雄, 小倉親雄, 식민사관, 한일관계, 慶基殿, 肇慶廟, 全州史庫, 『朝鮮史』, 실증

투고일(2015. 7. 22), 심사시작일(2015. 7. 22), 심사완료일(2015. 8. 17)

65) 1964년판 『全州市史』의 구성은 '第一篇 歷史的 考察 — 第二篇 自然環境과 住民 — 第三篇 市勢 — 第四篇 官公署 — 第五篇 文化 — 第六篇 鄕土'의 순으로, 제2편은 『全州府史』 제2편 '地誌'에, 제3편은 『全州府史』 제3편 '府政'에, 제4, 5, 6편은 『全州府史』 제4편 '各說'을 3개의 편으로 나누어 놓은 양상이다.

66) '新羅統一以前의 沿革 — 後百濟와 全州 — 高麗時代 — 李朝建國의 全州 — 宣祖朝國難과 全州 — 甲午東學革命戰爭과 全州 — 反日鬪爭과 全州'의 7개의 章으로 구성된 1964년판 『全州市史』 제1편 歷史的 考察은 『全州府史』 제1편 통설과 비슷한 흐름임을 알 수 있다.

〈Abstract〉

Compilation of local history in the Japanese colonial rule
- Special emphasis on the '*Jeonjubusa*(『全州府史』)' -

Jeong, Sang-Woo*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the local history compilation of colonial period through '*Jeonjubusa*(『全州府史』)' which was published in 1942.

Since the Joseon Dynast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y leaders(在地士族) had compiled local history for governing of local and ensuring the superiority of their own in the community. The local history of Jeonju had also been compiled in the Joseon Dynasty. Its main contents are physiographical and anthropogeographical items of Jeonju.

After the Joseon Dynasty had opened her ports, many Japanese settled in the Joseon and compiled local histories. In Jeonju, '*Lichoutojensyu*(『李朝と全州』)' was compiled by Japanese who settled in Jeonju. It was intended to argue the need for a railroad that passed through the Jeonju. So the relationship of the Joseon Dynasty and Jeonju has been presented as a means for the installation of transportation. After the '*Lichoutojensyu*' had been published, local history of Jeonju was not compiled. So the '*Jeonjubusa*' was the first published local history of Jeonju after 1910.

Since 1930s, a lot of provincial governments had published local history to call in historians. Joseonbu(全州府) also called in Hideo Ogiyama(荻山秀雄) and Chikao Ogura (小倉親雄), who had majored in history at Kyoto-Imperial-university and worked in the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朝鮮總督府 圖書館), for compiling '*Jeonjubusa*'.

'*Jeonjubusa*' was composed of 4 chapters. The development of Jeonju by colonial rule, current state and historical sites and figures of Jeonju were narrated at chapter 2, 3 and 4. These composition and contents were something close to the topography(地誌) rather than history-book. As the 'History of Bu'(府史), it was chapter 1 that described

* HK Research Professor, Hallym Academy of Sciences, Hallym University.

history of Jeonju for the first time, to serve as historical basis for the other chapters.

In chapter 1, the historical meaning of Jeonju are summarized in two aspects. One is the Jeonju as the capital of the Later Baekje, and main contents of this part is that Gyeon-whon(甄萱) wanted to pay tribute to Japan for getting aid but failed to perish in the end. The other is the Jeonju as the family originate(貫鄕) of the Joseon royal family, and main contents of this part is the facilities installed in Jeonju - such as Gyeonggijeon (慶基殿), Jogyoungmyo(肇慶廟) and Jeonjusago(全州史庫) which symbolized the Joseon Dynasty. That is, the history of Jeonju was written as Korea-Japan relation under the Japanese superiority and symbolic icons of the Joseon Dynasty, not historical changes of Jeonju.

A lot of historical materials presented in '*Jeonjubusa*' could be gotten easily against background of government authorities such as the Library of Japanese Government-General or Joseonbu. But most frequently used historical materials shaping the center of the description - such as *the Annals of Joseon Dynasty*(朝鮮王朝實錄) and *Ilseongrok*(日省錄) - were those presented in *Joseonsa*(『朝鮮史』, compiled by Joseonsa Pyosuhoe(朝鮮史編修會). In other words, the history of Jeonju was replaced by Korea-Japan relation based on the Japanese colonial historiography and narrative of Joseon Dynasty's symbolic icons. And such a history of Jeonju was ensured "scientific objectivity" by historiography project of the central authority represented by *Joseonsa*.

Key Words : *Jeonjubusa*(『全州府史』), Hideo Ogiyama(荻山秀雄), Chikao Ogura(小倉親雄), Korea-Japan relation based on the Japanese colonial historiography, Gyeonggijeon(慶基殿), Jogyoungmyo(肇慶廟) and Jeonjusago(全州史庫), *Joseonsa*(『朝鮮史』), scientific objectivity